

MEG, 북미시장 먹구름 걷히나?

아시아 수요 살아나면서 가동률 상승 ... 경제·소비 회복이 관건

2001년 고전했던 북미의 MEG(Monoethylene Glycol) 생산기업들이 2002년 들어 회복세를 맞고 있다.

MEG 생산기업들은 아시아 시장으로 다시 눈을 돌리면서 전반적인 경제회복이 EG시장을 침체의 늪에서 건져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1년에는 세계수요 감소에 따라 가격이 곤두박질 치고, 가동률도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영국의 PCI Xylenes & Polyester는 2001년 MEG 시장이 바닥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MEG 시장은 연평균 90만톤(7%) 신장했고, 주 수요처인 Polyester Fiber 시장은 연평균 7-10%의 신장률을 나타냈으나, 2001년 세계 섬유 시장성장률에 0-1% 그쳤기 때문이다.

MEG 시장 불황은 미국 및 세계경제 침체가 주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미는 겨울이 이례적으로 따뜻해 MEG의 또 다른 주 수요처인 부동액 산업이 타격을 입어 상황이 악화됐다.

그러나 MEG 생산기업들은 향후 2002년 중반에는 수요가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음력설 이후 아시아의 3월 운송물량 수요가 고개를 들었고,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수요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중국은 MEG 수요가 240만톤으로 세계 최대이다.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도 계절적인 MEG 수요처로 미국은 수요비중이 최대이고, 유럽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Dow Chemical은 2002년 1/4분기 말에서 2/4분기 초 탄산음료 및 생수 Bottle용 PET가 성수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ET 수지는 여름철 Bottle 소비에 대비해 봄부터 생산이 시작된다.

그러나 MEG 수요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급반등세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untsman은 수요가 바닥이어서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이 시간문제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경제 및 소비자 신뢰 회복이 따라주는 것이 관건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북미는 Glycol 뿐만 아니라 Glycol 유도제품 재고가 0에 가까워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년 세계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Glycol 수요가 약세를 나타냈고, EG 생산기업들과 수요기업들은 물량 구매를 자제하고 재고를 줄이기로 해 Polyester 체인 전체에서 상당한 재고감축이 있었다.

재고감축에 따라 가동률은 타격을 입었다. MEG 가동률은 파악하기 힘들으나 MEG의 Precursor인 EO(Ethylene Oxide)는 2002년 1월 가동률이 66.4%를 나타냈다.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001년 4월에는 EO 가동률이 72%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2002년 초부터 실시되고 있는 다수의 정기보수도 EO/EG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Dow Chemical은 루이지애나주 St. Charles 소재 1개 플랜트의 정기보수를 2002년 1-2월 실시했고, 추가 정기보수 일정도 검토중이다.

Huntsman도 텍사스주의 Port Neches 소재 최대 EO/EG 플랜트의 정기보수 및 촉매 교체를 위해 1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한 뒤 3월 재가동했고, Old World Industries는 2002년 6월 텍사스주 Clear Lake 소재 플랜트를 30일간 정기보수 및 촉매를 교체할 계획이다.

2002년에는 신증설에 따른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Dow의 말레이시아 소재 38만5000톤 증설 플랜트가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고, Oxide/Glycol 플랜트도 가동중이나 생산제품은 시판하지 않고 있다.

원료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 2월 이례적인 천연가스 및 Ethane 가격 급등으로 생산기업들이 고전했으나, 2002년 2월에는 겨울이 따뜻해 난방용 천연가스 및 프로판 수요가 감소하고 경기침체 때문에 에틸렌 원료 수요가 많지 않아 북미가격이 평균을 회복했기 때문이다.